

# “식품까지 온라인 구입...병원·약국·편의점 입주 서둘러야”

광주·전남 대도약의 해를 열자  
<1> 빛가람혁신도시 시대

## ⊕ 이전기관 직원들의 한달

한국전력 이전 등으로 나주 빛가람도시(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지 1개월이 지났지만 현지에서 생활하는 공공기관 직원들과 입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한마디로 ‘아직은’이었다.

전체 16개 대상 기관중 1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면서 빛가람도시가 외형적으로 모습을 갖췄지만 병원과 학교 및 학원, 소풍물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체감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다.

지난 6일 해질녘 빛가람도시 내 놓어촌 공사 앞 왕복 4차선 도로는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탓에 날려있는 건축자재, 입주가 이뤄지지 않아 비어있는 건물들로 쓸쓸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인도를 따라 50m 간격으로 가로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주변에 불이 켜진 상가나 주택은 물론 오가는 행인도 없었다.

이날 퇴근 후 혼자 귀가하던 놓어촌공사 직원 최모(여·36)씨는 야근이 무섭다고 말했다.

최씨는 “곳곳에서 아직 공사를 하고 있고 어두워서 걸어서 20분이 넘게 걸리는 귀갓길이 너무 무섭다”며 “CCTV도 안보이고 일대에 경찰서는 물론이고 돌아다니는 순찰차도 없어 직원들은 야근을 극도로 기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늦은 시간 일대에 돌아다니는 버스나 택시도 없어 여성 직원들은 직장 상사의 눈치에도 아랑곳 않고 야근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여직원들 귀가 어려워 야근 기피

문화생활은 몰아서 주말 서울서

1시간 간격 시내버스 제일 불편

식당 부족 광주·나주 원정 회식

혼자 사는 20대 여성 직원들 사이에서는 인터넷 쇼핑이 유행하고 있었다. 대부분 승용차가 없는 탓에 생필품과 식자재를 구입하러 광주나 나주시내까지 나갈 수 없어 생긴 옷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전력에 근무하는 박모(여·28)씨는 “젊은 직원들은 퇴근하고 할일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버스가 한 시간에 한대 꼴로 운행돼 인스턴트 등 식품까지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해 구입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여직원은 여가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영화나 공연 등 문화생활을 즐기기가 어렵다는 게 그들의 불만이다.

한전 측에서도 매주 버스를 동원해 직원들을 서울로 이송(?)해 한 주간 쌓인 스트레스를 풀도록 배려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사람이 몰려 KTX 마저 예매하지 못하면 미리 잡아놓은 약속도 취소한 채 홀로 ‘방콕’ 생활을 보낸다. 이런 불편은 남자직원들도 마찬가지. 직원 80~90%가량이 서울에 가족을 둔 채 홀로 생활하는 기러기 아빠들로 퇴근 후 동료들과 술 한 잔 즐기고 싶어도 마땅한 곳을 찾기가 힘들다.

부서가 회식을 할 경우에는 광주나 나주시내에 거주하는 직원 차를 얻어 타고 한 끼밖에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집으로 돌



나주 빛가람도시 내 한국전력 등 13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말 입주를 마치면서 혁신도시 주민이 된 직원 및 가족들이 부족한 대중교통과 미흡한 공공·유통·편의·문화시설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나주시, 광주시, 전남도 등과 정부부처가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빛가람도시 주거지역 전경. /최현배기자 choi@

아오는 길은 마땅한 교통편이 없어 광주에서 숙박을 하거나 비싼 택시를 이용하는 등 애를 먹고 있다.

한모(47)씨는 “광주에서 회식을 하고 귀가할때 항상 콜택시를 부르는데 택시비만 3만 원 이상이 나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결혼 2년차에 접어든 양모(33)씨는 “교통편이 없어 부인이 여가생활을 즐기기 어

려워 한다”며 “외식이나 영화관람은 주말에 몰아서 즐기는 편”이라고 말했다.

남편과 아바를 따라 내려온 가족들의 불편도 컸다. 남모(여·46)씨는 “교통편이 불편해 아들을 주변 고등학교로 보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 일부러 기숙학교에 보내야 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날 만난 빛가람도시 입주민 대다수는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도 아이들이 없는 탓에 친구를 사귀기 어려운 점과 병원과 약국, 마트 등 편의시설 부족을 개선할 점으로 꼽았다.

특히 이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은 1시간에 1대꼴로 운행되는 버스 배차했다. 이마저도 노선 안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아예 대중교통을 이용할 생각마저

저버리게 만든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입주 초기라 불편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빠른 시일안에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해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박기용기자 pbxer@kwangju.co.kr

## ‘불황속 단비’... 3000억 기업도시 진입도로 공사 잡아라

영암 삼호읍~해남 산이면 10.83km... 컨소시엄 5곳 입찰참가 사전심사 신청

총 사업비가 3000억원을 넘는 기업도시 진입도로의 수주경쟁이 본격화됐다. 최근 지역 건설 불경기 등을 감안할 때 대기업과 지역기업으로 짜인 컨소시엄이 설계심사나 가격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암 삼호읍(국도 2호선)에서 해남 산이면(지방도 806호선) 10.83km를 연결하는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참여할 컨소시엄 5곳이 조달청에 단기방식(설계·시공 일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공사비 2697억원, 감리비 339억원 등 총

사업비 3036억원인 기업도시 진입도로는 공구를 2개로 분리 발주했다. 1675억원이 투입되는 1공구(5.4km·교량 2.2km 포함)에는 한양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이 지방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한양건설(지분 43%) 컨소시엄에는 대선(12%)·해동(10%)·우미(6%)·호반(6%)·산이(6%)·덕흥(6%)·동아기술(6%)·신성(5%), 포스코건설(46%) 컨소시엄은 새천년(22.0%)·남양(22.0%)·동광(10%), 대림산업(43%) 컨소시엄에는 남해(21%)·세운(20%)·용진(16%) 등이 참여했다. 1022억원의 2공구(5.4km)에는 금

호건설과 금광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뤘다.

금호건설(45%)은 우미(20%), 용진(20%), 경도(15%)와 금광기업(40%)은 남화(20%), 해동(15%), 남진(15%), 남해(10%)와 각각 컨소시엄을 짰다. 1공구는 교량이 포함된 점을 감안해 설계평가 65%, 가격 35%를, 2공구는 설계평가 55%, 가격 45%를 반영해 최종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1공구는 설계평가, 2공구는 가격이 각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2공구는 저가입찰을 한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크고 1공구

는 설계평가 좌우하겠지만, 가격경쟁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설계평가 심의를 위해 설계심의분과위원 풀인원 250여명 중 25명(공무원 12~13명 포함)을 임의로 선정해 1·2공구 설계를 평가할 계획이다. 최종 업체는 오는 5월께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입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30~40명을 포함한 설계심의분과위원 전체 인원 250여명의 명단, 평가과정, 결과를 모두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업도시 진입도로 공사와 관련해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시립도서관

지상 3층 규모 오는 10월까지 준공 개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이전기관 직원 및 가족 등 주민들을 위한 시립도서관이 건립된다. 혁신도시 내 공공문화시설로는 처음이어서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다.

나주시는 6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청사 부지에 사업비 31억5000만원을 들여 빛가람시립도서관을 오는 10월 준공, 개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상 3층에 전체면적 1452㎡ 규모로 지어질 도서관은 종합자료실, 어린이 및 가족실, 만화자료실, 북카페 등이 들어서 등 혁신도시의 교육문화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립도서관이

들어오면 이전기관 직원은 물론, 시민들도 이용이 가능해 혁신도시의 중추적인 문화인프라 기능을 하면서 지역 문화 수준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와함께 영산동 용산주공아파트에 4000만원을 들여 책사랑 작은도서관도 조성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빛가람혁신도시에 도서관이 건립되면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은 물론 가족,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오늘의 신문은] 세계 명사들의 특강**

신문을 읽으며 훌륭한 사람들의 생각을 만납니다  
그들의 생각과 지식이 나의 논리가 됩니다  
신문은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입니다

누구나 배운다  
“신문은 가장 큰 학교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